



◆ 김경자 김영희 유정희 최남순 지음

시간을 잇는 이야기

책과 글, 사진으로 남긴 우리의 이야기

인천광역시교육청신트리도서관

나만의 문장으로 남을
시간을 이어 함께 기억된 나만의 이야기

시간을 잇는 이야기

발행일 | 2025년 11월

글·사진 | 김경자 김영희 유정희 최남순

지도강사 | 박경란

발행처 | 인천광역시교육청신트리도서관 독서문화과

제 작 | 인천광역시교육청신트리도서관

I S B N | 979-11-94496-70-0(05800)

* 이 책은 인천광역시교육청신트리도서관의 2025년 독서동아리 「책꽃길」 참여자들과 마음을 모아 제작된 책입니다.

* 이 책에 수록된 글과 그림, 사진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시간을 잇는 이야기

김경자 김영희 유정희 최남순

인천광역시교육청신트리도서관

목차

들어가는 말

미니자서전

1. 덩의 삶 / 최남순 11
2. 나의 행복한 삶을 위해 / 유정희 13
3. 나는 / 김경자 16
4. 꿈을 찾는 여정은 아직도 ing... / 김영희 19

『소음공해』 복리뷰

1. 층간소음 / 최남순 21
2. 존재 자체가 민폐인 세상 / 유정희 23
3. 생각을 조금만 바꿔본다면. / 김경자 24
4. 그녀는 내 앞에서 구불거리는 머리를 / 김기영 27

시문학 자작시

1. 명퇴 교사의 하루 / 유정희 30
2. 우리 양이에 대한 생각 / 김영희 32
3. 코코(반려견) / 김경자 33
4. 도서관 / 김기영 35

포토에세이

1. 반장과 부반장의 결혼식 / 유정희 37
2. 식구 / 김경자 39

들어가는 말

함께 읽고 걷는 꽃길 위에서

- 지도강사 박 경 란 -

가을이 무르익을 무렵, 시니어라고 하시기에는 썩썩하고, 아직은 더 꿈꾸고 싶다 하시는 분들과 독서동아리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도서관과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 나는 그분들께 조용한 친근감을 느낀다. 그분들과 책으로 함께하는 모임은 언제나 나를 설레게 한다. 짧지만 추워지기 전, 이 가을에 추억을 쌓아가기에는 충분한 시간이라 생각하고 4차시를 알차게 꾸며보고 싶었다.

함께 걷는 그 시작의 첫걸음은 나를 소개하고, 발견해보는 시간으로 준비했다. 엄마로, 아내로, 며느리로, 그 누군가로 살아가는 시간이 더 많았던 5.60대 여성들에게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 자신의 이야기가 책 한 권으로도 모자라고, 마치 영화 같다고 하지만 누구나 ‘나는 이렇게 살아왔다.’ 하고 말하기는 쉽지 않다. 나는 그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매개체가 책이었으면 한다. 그래서 선택한 우리의 첫 책은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지만, 깊이 만큼은 가볍지 않은 그림책 <나는요>이다. 우리는 책을 함께 낭독하고 마음에 와닿은 그림들을 이야기 나누며, 내 안의 숨겨진 나를 발견해 갔다. 그리고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아이스브레이킹이 됐을 무렵, 두 번째 시간은 <소음공해>라는 단편소설을 함께 읽게 되었다. 나에게서 출발해 주변과 이웃으로 확장해 보는 시간.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층간소음’에 대한 토론을 해보았다. 선량한 사람이라 자처하고 있는 우리는 과연 이웃에게 공해가 되는 삶은 아니었는지 생각해 보게 한다. 함께 하는 사회, 공존의 의미를 되새겨 본다.

세 번째 시간, 시는 특히나 가을에 더 잘 어울리는 문학 장르가 아닐까? <누구나 시 하나쯤 가슴에 품고 산다>라는 책 제목처럼 반백 년 넘게 살아오며 나에게 영향을 준 시 한 편쯤은 있지 않을까 해서이다. 또는 눈물이 날 만큼 마음 시리게 했던 시 한 구절을 낭독, 감상하며 ‘책 꽃길 독서동아리’의 깊이는 더해져 갔다.

어느덧 마지막 시간, 아쉬움이 남는 만큼 여운도 남을 것이라 믿으며, 4차시는 나의 소중한 추억이 담긴 ‘포토에세이’ 쓰기 시간이었다. 언제나 들고 다닐 수 있는 핸드폰은, 카메라의 역할을 대신 해준지 오래되었다. 사진은 단순히 기록만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중요시 하는지, 나를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이 되었다. 사진 속에서 그것들을 발견해보며 핸드폰에는 내 이야기가 담겨 있음을 알아간다. 마지막 수업의 순간도 그렇게 사진 한 장의 추억으로 남기며 우리는 ‘책꽃길 독서동아리’ 모임을 마무리하였다.

많은 인원은 아니었지만 나는 책으로 함께한 4차시 동안 소중한 분들과 인연이 되었다. 후천적 청각 장애를 갖고 계셨기에, 다른 분들께 폐가 되지 않을까 항상 조심스러워하셨던 선생님. 하지만 항상 밝은 모습으로 수업에 참여하셨던 모습이 떠오른다. 최근 학교에서 일어나는 여러 어려움을 증명해 주듯, 30년 넘게 교직에 계시고 은퇴하시며 ‘학교에서 탈출’하셨다. 소회를 밝히시던 중학교 선생님, 칠순이 넘는 나이에 글을 계속 써보고 싶다고 하시던 선생님과, 도서관에서 내 꿈도 발견하고 책으로 함께 하는 시간을 갖고 싶었던 선생님들도 생각한다.

나 또한 읽고 걷고 쓰는 사람으로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오십 나는 재미있게 살기로 했다>밴드에 참여하였다. 곧 원을 바라보는 이 시점에서 이 책과 4주 동안 함께 했던 ‘책꽃길 독서동아리’ 모임은 내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 글쓰기는 가장 고난이도의 독서활동이다. 또한 글쓰기의 최대 이점은 자기 치유 기능이 있다는 것이다. 어느 문학평론가님의 말씀처럼 고전이나 책에서 나오는 명문장들은 어려운 말

이 아니다. 나만의 경험의 쌓이고, 그 안에서 모난 것들이 다듬어지고, 아플 만큼 아프고 나서야 나온 글들이야 말로 나를 돌아보게 하고 성찰하게 한다. 그리고 그것이면 충분하다.

책을 읽고 생각을 나누며 한 자 한 자 골라 쓰셨을 그 문장들을 보며 나 또한 나의 삶을 반추해 본다. 그리고 더 나아가고 싶어진다. 책을 놓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젠가 책 꽃길 위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음을 믿고, 웃으며, 서로 격려해 주었다. 그렇게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책과 함께 읽고 쓰고 걸으며, 다음을 기약해 본다.

신티리 도서관 [책꽃길 독서동아리]

1차시

내 소개 글쓰기 (미니 자서전)

덤의 삶

- 최 남 순 -

뉘엿뉘엿 저물어가는 나를 무어라고 헤아려볼까.

나는 슬픔을 담백 안고 태어났다. 앞산은 모산봉과 뒷산에는 나지막한 언덕과 봉이 있고 마을 앞쪽에는 시냇물이 흐르는 강릉의 ‘모산’이라는 목가적인 소도시에서 태어났다.

남자 아우를 보라고 남자[남] 강릉 최씨의 돌림 [순]이 되어 ‘남순’이란 이름을 할머니가 호족에 올려, 그때는 중학교 갈 때까지 내 이름이 남순인지도 모르고 살았다. 첫돌도 되기도 전에 6.25 전쟁의 아픔이 닥쳤다. 할아버지는 포탄에, 삼척 시멘트회사에 근무하던 아버지는 행방불명, 나보다 여섯 살 위인 오빠는 홍역으로 삼대를 잃어버렸다. 남편과 아들과 손자를 잃은 할머니, 남편과 아들과 시아버지를 잃은 어머니, 아버지와 오빠, 형, 조카를 잃은 고모 삼촌들의 울타리 속에서 애처롭고 안타깝고 귀해서 과보호 속에서 온실의 화초처럼 자랐다.

28세의 젊은 어머니는 재혼도 하지 않으시고 서로의 아픔을 위로하며 사셨다. 아마 어머니의 가장 큰 응어리진 가슴 가장자리에서 나를 내려놓지 못하셨으리라. 모두의 아픔 속에 조그맣고 가냘픈 어린 생명 하나 바라보며 애지중지 돌보며 시름과 슬픔을 달래며 사셨나 보다. 철모르는 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아무것도 모르고 당연히 그렇게 사는 것으로 생각했다.

결혼하기 전에는 재수도 없이 방학 이상을 놀아보지도 못했다. 결혼은 외아들과 했

다. 시아버님의 복두칠성님께 기도해 얻은 첫아들인 남편도 누리는 것에 익숙해 우리 부부는 서로 배려도 약하고 받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엄청 혼란스러웠다. 남편은 착한 사람이라. 그런데 자발적으로 베푸는 건 없다. 도대체 착한 사람의 정의마저 혼돈이 왔다. 결혼의 막연한 환상, 이상과 현실의 갈등 속에서 이혼하겠다고 설쳐대기도 했다. 이제는 알고 있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고 장점과 단점은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두 딸을 낳았다. 두 딸은 건강하게 예쁘게 잘 자라주어서 기죽지 않고 우쭐대는 엄마가 되었다. 아이들도 채수도 안 하고 대학 진학하여 취직하고 결혼해서 큰아이는 딸 둘, 작은아이는 딸 하나. 아들 손자 없이 손녀딸만 세 명이다. 어찌 보면 결핍 투성이지만 아들이 없다 보니 홍역처럼 넘어가는 며느리와의 갈등도 없다. 시댁이 원주이고 인품들이 좋으신 분들이라 만며느리인데도 시집살이 앓이도 모르고 예까지 왔다.

돌이켜보면 덤으로 살아온 삶이다. 그 아픈 소용돌이 속에서 가족이란 울타리로 외로움도 어려움도 없이 살았다. 결혼해서는 특히 딸아이들이 잔잔한 행복을 가져다준다. 큰딸 은경이는 남편, 친구, 동생에게도 못하는 이야기를 엄마에게만 할 수 있고, 아직 엄마에게서 독립이 안 되었으니 오래오래 살아달란다. 하지만 언제까지 들어줄 수 없을 것이라고 치매가 와서 ‘새댁은 누구요’ 할지도 모른다고 했더니 그냥 누워있는 엄마에게 속 시원히 하소연하겠다고 어이없는 상상을 하고 있다. 또 어느 가을날 외출했다 돌아오는 아파트 입구에서 큰딸과 통화를 하면서 “나도 엄마처럼 살고 싶어”라고 귀속에 속삭여준다. ‘아~ 나는 참 잘살았구나’ 자식의 인정이 왜 어떻게 살았는지도 모르고 흘러온 세월에 대한 보상과 큰상을 받은 느낌이었다. 이것도 자식이 내게 준 덤이다. 아직까지는 아픈데 없이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 수 있는 것도 건강의 덤이다. 미우니 고우니 우겨대며 늘 건강하게 옆을 지켜주는 남편의 덤이 제일 크다. 지금 욕심은 건강하게 남편과 같이 비슷한 시기에 가고 싶다.

내 능력이라기보다는 덤으로 저물어가는 나를 사랑하고 덤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꼴깍 지는 해가 되고 싶다.

나의 행복한 삶을 위해

- 유 정 희 -

“나는 이제 여한이 없다.”

올해 63세인 나의 선배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일도 할 만큼 했고, 놀 만큼 놀아봤고, 세상의 많은 나라도 돌아다녔고, 손자도 둘이나 보았다. 내 딸들은 ‘내가 죽어도 엄마는 참 좋은 인생을 살다가 돌아가셨으니 아쉬워하지 않을 거야.’라고 말했다고 한다. 나는 이 선배의 말이 참 듣기 좋았다.

그래서 올해 나는 32년 6개월을 끝으로 내가 다니던 직장인 학교를 탈출하였다.

나는 서울의 변두리인 대림동에서 가난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 가난한 유년 시절을 보냈고 그 당시 경제적 어려움이 많았던 부모님들이 그랬듯이 자식만큼은 공무원이라도 하나 되셨으면 하여 교사가 되었다. 공부를 하는 일이 그리 어렵지는 않아서 수월하게 대학을 갔고 수월하게 임용고시에 합격을 하여 교사가 되었다.

대학에서의 생활은 다양한 가치관과 개성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만나 지금의 성격이 형성되었는데 도움이 되었던 것 같다. 밑바닥의 상황에서도 유머를 잃지 않는 여유는 그때 만들어졌고 나는 삶이 참 즐겁고 재미난 것임을 배웠다.

그리고 93년도 부천의 내동중학교를 첫 발령지로 시작하여 8개의 학교에서 근무하였다. 첫 월급을 받아 부모님에게 다 드렸을 때의 기뻐하셨던 모습이 지금도 기억에 남아있다. 중학교, 인문계 고등학교, 실업계 고등학교 등에서 근무하면서 학생들로부터 많은 인기를 얻었다. 재미와 감동이 있는 도덕 수업이라는 교육 철학을 가지고 우직하게 씩 없이 근무를 하였다. 남에게 민폐를 주는 일을 죽기보다 싫어하여 꼬리뼈가 부

러져도 서서 근무를 하기도 했다. 나는 내 삶의 에너지 대부분을 학교생활에 갈아 넣었다. 나는 ‘후다닥’, ‘투덜이’, ‘프로’ 등으로 불렸다. 그렇다. 나는 학교를 좋아했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하는 일이 점점 힘에 부치자 투덜투덜 투덜대면서 일을 하게 되었다. 점점 학교가 싫어지기 시작했다. 싫은 정도가 아니라 혐오스러웠다. 첫 발령을 받았을 때의 학생들 숫자는 52명이었다. 그때 나는 건강했고 힘이 있었고 정신력도 강했다. ‘하면 하는 거지’ 이런 새마을 정신으로 생활을 하였다. 지금은 학생이 많이 줄어 25명에서 많으면 30명. 그런데 학생 하나하나가 모두 교사의 에너지를 갉아 먹으면서 힘겹게 했다. 작년의 서이초 교사 자살 사건은 그간 학교에서 쉬쉬했던 사건 중 하나가 언론에 보도된 것뿐이다. 그런 일은 많이 벌어지고 있었고 아동학대로 고소되는 교사들이 학교마다 한 명씩은 있다. 돈을 요구하는 못된 부모도 있다. 작년에는 10년 전 함께 교사생활을 했었던 옆 반 담임이 암으로 사망을 하였다. 그간 동료 교사의 죽음을 열다섯 건이나 보았다.

탈출하고 싶었다.

그곳에서 더이상 있다가는 건강한 정신으로 살 수가 없을 것 같았다. 교사 앞과 뒤에서 다른 말을 하는 학생들의 이중성에 염증이 생겼고 지쳐서 병들어 가는 동료들의 얼굴을 보는 것도 힘들었다. 고생과 희생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 같았다. 물론 좋은 학생들도 많다. 그들로 인해 격려받고 사랑받으며 오래 머물 수가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오르는 두둑해지는 월급봉투는 교직에 더 오래 있으라고 나를 붙들어 댔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부모님 부양도 고민하게 만들었다. 경제력이 오르락내리락 반복하는 남편의 수입도 망설이게 했다.

하지만 나는 탈출하고 싶었다. 그리고 1학기를 끝으로 도망치듯 학교생활의 종지부를 찍었다. 홀가분해졌다. 덕지덕지 매달린 책임에서 벗어나 자유로웠다. 꾸역꾸역 주어진 일들이 없어졌다.

지난 주말에는 한강에서 불꽃 축제를 보았고 다음 날에는 부천에서 비보잉대회를 보았다. 교사이던 시절에는 주말에 밀린 집안일을 하고 고갈된 에너지를 채우기 바빠서 어림도 없던 일이다. 밤늦게까지 공연을 보고 소리 지르고 웃고 다음 날의 출근을 생

각하지 않아도 되는 무한 자유 앞에서 나는 너무도 기분이 찢어졌다. 그래서 외쳤다.
‘좋다... 다 좋다... 나 이제 일 안 해도 돼... 나 이제 투덜이 안 할 거야. 나는 이제
나를 더 이상 불쌍하게 여기지 않을래.’

평생을 일만 하던 나에게도 목표가 생겼다. 나의 선배처럼 나도 여한이 없는 삶을
살아야겠다. 나의 딸이 ‘엄마는 참 잘 살다 돌아가셨어. 좋은 삶, 행복한 삶이었어.’라
고 말할 수 있게 시간을 보내야겠다는 결심을 했다.

나는

- 김 경 자 -

나는 가끔 자신을 토닥이며 칭찬해 주곤 한다.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끝까지 완수했을 때다. 고통을 참아내고 지루함을 벗겨내면서 마음의 갈등을 이겨낸 자신이 대견해서다. 자신에게 몰두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을 때도 아낌없이 토닥여준다. 자신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마음을,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칭찬을 통해 나를 긍정의 방향으로 이끌기 위함이다.

내가 팬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의연하게 자신을 받아들일 때다. 부족하고 모자람이 없다 할 수 없는 자신이 무언가를 할 수도 있다는 의욕을 갖는 게 기특하다. 누군가의 권유 없이도 스스로 새로운 일을 시도하려는 마음에서 오롯한 자기 위안을 느낀다. 여기 글쓰기 수업에 참여한 일도 그 예라 할 수 있다. 세상에 관심을 두고 마음이 열려 있다는 것이 감사하다. 작은 변화 일지라도 도모하다 보면 세상 물결의 흐름을 알 수 있게 된다. 혼자서 막연할 때 어딘가에 발을 담그면 다른 시야가 열린다. 안목이 트이면서 생각도 마음도 넓어지고 깊어짐을 알게 된다.

나는 신선한 공기로 샤워하듯 나를 환기시키는 산책을 한다. 생각에 비타민을 첨가해 주는 산책은 심신을 이완하며 평온함을 선사해 준다. 걷는 동안 생동감이 온몸에 흐르는 것을 경험한다. 몸의 율동에서 힘이 생성되고 마음이 반응한다. 이때 감정과 이성이 활성화되면서 평소에는 생각하지 못한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도 한다. 감성적 상상이 자연스럽게 담겨 있는 단상은 오래 기억에 남는다.

나는 사람들을 좋아하면서도 사람들과 만남이 편치 않다. 나의 불편함 때문일 것이다.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교류를 멈출 수는 없는 일이기에 극복하려 노력하고 있다. 청력이 좋지 않다는 것이 사람들을 멀리할 이유가 될 수 없다. 장애를 갖고도 멋지게 사회생활을 하고 자신의 목표를 이루면서 훌륭한 일을 성공적으로 해낸 사람들이 많다. 그들의 지난한 과정을 돌아보지 않아도 몸소 겪은 일처럼 몸이 떨린다. 그들의 노력과 인내와 강인한 의지에 무한한 박수를 보낸다.

내가 편안하게 생각하는 곳은 혼자 있을 수 있는 공간이다. 사람들이 많은 곳이든 아무도 없는 곳이든 다 괜찮다. 군중 속에서도 다른 시선과 마주치지 않고 조용히 머물 수 있으면 된다. 여럿이 있어도 각자의 생각이나 일에 몰두하면서 누군가와 함께한다는 평온함을 감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느끼고 싶은 것이다.

내가 모르는 것을 알려주고 세세하게 설명해주거나 섬세하게 감정을 배려해주면 나는 무척 고마움을 느낀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이에게 호감이 간다. 배려 속에는 사람을 이해하고 위로하는 감정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역지사지’하는 마음도 들어 있다. 진실한 마음이다. 자신을 다스리기에도 복잡한 시대에 다른 이를 염두에 두는 일은 환경 문제만큼 쉽지 않다.

내가 친해지고 싶은 사람은 상대를 재촉하지 않고 천천히 마음을 읽어내는 사람이다. 알아도 굳이 말하지 않으며 많은 말을 하지 않으면서도 많은 것을 의미하는 자신만의 싸인을 갖고 있는 사람. 내가 닮고 싶은 사람이기도 하다.

내 안에는 코코(반려견)가 있음을 느낀다. 코코가 하는 행동에서 나를 발견할 때가 있다. 무의식중 본능적으로 하는 행위를 보면서 ‘너도 그렇구나. 나도 그래...’ 공감한다. 나를 보듯 코코를 마주 보며 등을 쓰다듬어 주곤 한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화가 날 때는 코코와 눈을 맞추고 그의 침묵을 다독인다. 무언의 반응에서 온기를 느낄 때면 어느 정도 감정이 가라앉아 있다.

올해가 다 가기 전에 옛날 물건을 정리하고 사진들을 모아 영상으로 편집해 기록을 저장해 두고 싶었다. 추분이 지나도록 아직 시행하지 못했다. 추워지기 전에 시도하고 첫눈이 내리기 전에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란다.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은 늦은 밤이다. 깊은 어둠은 집 밖을 가려주면서 주변의 소란과 잡기를 침전시킨다. 오로지 자신만을 밝혀준다. 작은 촛불이 벽에 큰 그림자를 만들어 내듯이 어둠은 내 안의 것을 확대시키며 가능성과 희망의 불빛을 비춰준다. 어둠에 둘러싸여 책을 읽거나 몽상을 펼치기도 하고 마음을 끄적거리며 옮겨 적기도 한다. 밤은 고독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의 것이다. 그 시간을 자신의 필요를 채우며 올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나를 칭찬한다. 몸을 지치게 하는 유혹에 나를 낭비하지 않아서 예쁘다. 단정한 일상을 보내는 내가 든든하다. 이 모든 것이 나를 이루고 나로 살아가게 하고 있다.

꿈을 찾는 여정은 아직도 ing...

- 김 영 희 -

나의 출생지는 서울 강남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강남, 하지만 197년대의 강남은 그저, 강 건너 뚝섬일 뿐이었다.

찾은 이사로, 서울-안양-인천을 거쳐 나는 부산에 안착했다. 물론 찾은 이사로 낮은 환경에 대한 불안과 답답함은 느꼈지만, 순종적인 학창 시절을 보냈다. 그리고 성인이 될 무렵, 가부장적 부모님을 벗어나고자 서울로 취업했다. 그러나, 딱히 목적 없는 생계형 직장생활, 의미 없는 성실함의 연속이었을 뿐이었다.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들 무렵, 진짜 내가 잘하는 것은 무엇인지... 너무 재미있어서 시간가는 줄 모르고 빠져들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고민하게 되었다.

즐겁고 신나는 내 꿈을 찾아 이것저것 도전! 또 도전!!

현재는, 정사서 2급, 바리스타 2급... 꿈을 찾는 나의 여정은 아직도 ING 이다. 그리고, 더불어 최종적인 내 꿈의 완성은, 죽기 전에 시집 한 권, 수필 한 권, 소설 한 편을 출간해 보는 것이다. 나는 이번 도서관 수업에 참여 한 계기로 시작해 보길 바란다.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나는 아직 여행 중이고 꿈을 찾는 여정도 계속될 것이다.

신트리 도서관 [책꽃길 독서동아리]

2차시

『소음공해』 북리뷰 쓰기

층간소음

- 최 남 순 -

올해도 어김없이 추석이 왔다.

차례도 지내지 않고 집안이 모이지도 않는 조용한 추석을 맞이한다. 젊었을 땐 시댁이 원주라서 남편 퇴근하고 가려면 차가 밀려 밤늦게 도착했다. 그런 일들이 시어머니께 민망하고 송구스럽고 불편해 왜 명절이 있어 이렇게 힘들까 하는 철부지 생각도 했다. 우리 집은 아들이 없이 딸만 둘이다. 딸아이들은 시댁에 들렀다 온 후에 집으로 온다. 고2, 중2, 초등학교 4학년 세 명의 외손녀뿐이다. 그래도 오랜만에 만난 손녀들은 신바람이 난다. 메모리 게임, 윷놀이, 오목, 풍선으로 배구놀이를 하고 논다. 크게 울림이 없는 놀이지만 “쉬! 조용히” “쿵쾅거리지 말고” “이제 그만해” 연신 주의를 시킨다. 아파트라는 복합 구조가 많은 불편함을 준다.

우리는 층간소음이라는 애매한 난제를 안고 살아간다. 다 같이 위 아래층이 있고 다 같이 자녀를 키우고 다 같은 생활 한다. 물론 불편하고 예민하다. 나도 손녀딸들이 3~4세 때 주말에 놀러 오면 통통거리고 걸어 다니다 보면 아래층에서 직접 또는 경비실을 통하여 민원이 들어 왔다. 물론 죄송하다고 조심하겠다고 말은 하지만 마음 한 구석 야속했다. 여자아이들이고 매일 사는 것도 아니고 가끔 주말에 오는데 참 예민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어찌 되었든 진심은 아니지만, 가해자이고 서로 불편한 게 싫어 만날 때마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래도 배려가 있는 분들이라 엘리베이터 앞에서 아이들과 만나니 “너희들이구나, 그래 어찌됐니, 뛰어놀아라”라고 배려해주신다. 나 자신도 언짢았던 내가 부끄러워졌다. 그리고 옆집이 새로 이사를 왔는데 강아지를 키운

다. 강아지가 밤늦은 시간 짖을 때가 제법 있다. 가뜩이나 불면이 심해 예민하데 속상할 때도 있다. 우리 집에 와서 짖는 것도 아니고 자기네 집에서 말귀 못 알아듣는 동물인데 어찌나 싫다.

하지만 이쯤에서 우리 모두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서로 예의를 지켜야 함은 당연하다. 물론 누구나 쾌적하게 살아야 하고 그렇게 살고 싶다. 또 자라는 아이들도 마음대로 활동하고 나이별 활동도 있을 것이고 살림하는 주부도 마찬가지일 거다. 우리가 복합 주택에 살려면 어느 정도 감수하고 이해하고 서로 협력해야 할 것이다. 개중에는 의식 없이 몰상식한 행위를 하는 분도 있다. 하지만 상식선에서 모임이 있다든지 손님이 왔다든지 지나치게 큰 어린아이들의 걸음이 통제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서로가 조심하고 이해도 해야 하고 참기도 해야 하지 않을까.

너무 자기중심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조심하고 참도록 유도하는 것도 가해자가 아닌가도 생각해봐야 한다. 자기 위주의 생활을 원한다면 복합 주택 구조가 아닌 단독 구조를 선택해야 하지 않을까. 어차피 필요에 의해서 복합구조를 선택했다면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최대한 노력해야 하고 다른 복합 주거형태에 사는 사람들의 쾌적한 삶도 보장해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가 불쾌감을 느끼는 만큼 상대방을 배려해야 하지 않을까.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층간소음, 나 자신의 정신건강을 위해서라도 너그러움을 즐기면서 살아가야 할 것 같다.

존재 자체가 민폐인 세상

- 유 정 희 -

본래 살아있는 생명체는 시끄러운 게 정상이다. 시끄럽지 않으면 죽은 것이다.

오늘 책꽂길 독서동아리 수업 시간에 함께 읽고 토론했던 책 <소음 공해>속 주인공은 자신이 선을 대표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앞장서서 모든 일에 간섭을 한다. 이런 사람은 우리나라 어느 곳이나 있으며 늘 날이 서 있고 존재 자체가 피곤하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아파트에 살면서 쥐죽은 듯이 살아야 하는데 이는 납골당에 든 신세와 다를 바가 없다.

오늘 오전에 강아지로 인해 항상 부딪치는 동네 아줌마와 시비가 붙었고 나는 열심히 사과를 했다. 물론 내 잘못이기는 했지만, 강아지를 키우다 보니 치르지 않아도 될 많은 일들이 생긴다.

가해자이면서 피해자가 되는 삶. 바글바글 몰려 사는 도시에서의 어쩔 수 없는 해프닝이다. 그래서 자연인이 그리도 인기가 있는 드라마가 되는 이유이다.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 없게 되어 있다. 하지만 어느 순간인지 옆 사람이 이웃 주민이 직장에서 만나는 동료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 대인관계의 어려움이 따른다. 존재 자체만으로 민폐가 된 세상이 되어 버렸다. 나 스스로도 내가 모르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없는지 뒤돌아보게 된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며 타인과 분리된 나만의 공간에서 TV로 세상을 만나는 게 가장 편하다는 사실이 조금은 아이러니 하기도 슬프기도 하다.

생각을 조금만 바꿔본다면.

- 김 경 자 -

오정희 작가는 소설가로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내용과 주제로 작품을 주로 쓰고 있다. <소음 공해>는 1993년에 발표된 작품으로, 짧은 단편소설이다.

<소음 공해>는 ‘나’와 같은 아파트 위층 여성 사이에서의 층간 소음으로 인한 내면의 갈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공동 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할만한 상황이 전개되고 후반의 반전으로 빛을 발하는 작품이다.

특히 재미있다고 느끼진 않았지만, 우리에게 많은 생각할 여지를 준다. 전반에는 중년 여성이, 중산층을 대변하는 느슨하고 차분한 일상과 봉사 활동을 통해 자신의 쓸모를 업 시키며 적당히 만족하는 삶을 보여주고 있다. 심리묘사가 세밀하고 적절해서 우리가 직접 겪는 일상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오정희 작가의 묘사하는 감성적 필력이 돋보인다. 이웃과의 층간 소음 문제로 인한 갈등은 실제 상황으로도 공감 가는 주제다. 특히 배려라는 생각을 들여다보면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층간 소음에 무딘 사람도 계속되는 소음에는 예민해지게 마련이다. 이웃과 어떻게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지 숙고하게 하는 소설이다. 다소 참견쟁이다운 모습을 주인공은 보여주고 있다. 선의의 피해자들을 대변해서 소음 공해와 공동생활의 수칙에 대해 주의를 주려고 한다. 위층에서 들려오는 소음에는 자신의 품위와 예절을 지키기 위해 처음에는 비대면의 방법을 취한다. 경비실 인터폰을 통해 의사를 전달하지만,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하자 직접 위층으로 향한다. 사려 깊고 양심 있는 이웃으로서 선물을 가장한, ‘선물도 무기가 된다’라는 생각으로, 실내용 슬리퍼를 가지고 올라간다. 자신의 교양있는 선택에 스스로 만족하며 벨을 눌렀다.

여기서 반전이 시작된다. ‘여자의 텅 빈, 허전한 하반신을 덮은 화사한 빛깔의 담요와 휠체어에서 황급히 시선을 떼며 나는 할 말을 잃은 채 슬리퍼를 든 손을 등 뒤로 감추었다.’고 책에서 표현하고 있다.

그랬다. ‘나(주인공)’는 마음을 다지고 올라오며 내심에서 연습했던 모든 말을 등 뒤로 감추었다. 더는 말이 필요 없었고 배려가 아닌 부끄러움으로 말문이 막혔다. 선물은 위선의 상징이 되고, 교양 있고 우아했던 여자는 몸이 불편해 실내에서도 휠체어를 탈 수밖에 없는 이웃을 인터폰과 경비실을 통해 괴롭혔던 거라는 것을 깨닫는다. 이기적이고 배려심 없는 사람은 윗집 여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사정도 모르고 배려를 가장한 선물을 가지고 찾아간 ‘나’임을 알게 된다. 사려 깊고 양심 있는 이웃이 아니라 보통의 이웃 사람으로서 머리 위에서 겪는 소음을 참지 못하고 해결하려 했던 ‘나’는 이기적이고 오지랖 넓은 사람이었다.

왜 경비는 사실을 전달하지 않았을까? 지켜보는 것이 경비 업무 중 하나이고 주민들의 출입을 보지 않을 수 없었을 텐데. 휠체어의 존재를 왜 말해주지 않았을까? 알면서도 말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어쩌면 나(주인공)와 같은 이유일지도 모른다. 경비도 교양 있고 사려 깊은 양심 있는 사람으로서, 게다가 경비로서 직업적 도덕과 규범을 지켜야하는 입장도 있다. 사생활을 쉽게 거론할 수 없었을 것이다. 직접 대면해 상황을 파악하고 ‘결자해지’하라는 의도도 있었는지 모른다. 경비원의 말 하지 못하고 충고도 얘기해 볼 수 있겠다. 제삼자로서 참견하지 못하고 전달만 하는 입장은 얼마나 고역일까.

자신의 내심을 친절하고 우아하게 포장하고 교양과 예의를 갖추며 봉사 활동을 하는 중산층의 여성, 인생 선배로서 해줄 수 있는 말을 한다는 약간의 기만이 깃든 충고를 하는 ‘나’는 주변에도 흔하다. ‘나’가 주변의 모든 일에 귀를 기울이며 참견쟁이임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경우는 많다. ‘나는 그렇지 않다.’는 생각을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품고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다. 그래서 <소음 공해>는 우리의 이야기가 되고 우리와 나를 다시 생각해보게 하는 책이다. 나와 닮은 주인공.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우리와 같은 사람.

뉴스에서 소음 공해로 인한 사건 사고를 자주 접하게 된다. 그만큼 일상생활과 소음이 밀착되어있다.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여겼는데, 어느 날 내가 가해자가 된 적도 있다. 반려견과 함께 생활하는데 짖는 소리에 민감한 이웃이 있었다. 나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소음 공해를 만들어 내고 가해자가 된 것이다. 조심하고 또 조심해도 반려견이 짖는 소리는 통제 불가능이다. 매번 사과하면서 나는 약자가 된다. 나에게 코코(반려견)는 시각장애인의 안내견과 같은 역할을 한다. 장애인을 위해 특수훈련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나와 생활하면서 제 스스로 터득하고 눈치채가며 익힌 처세술로서 임무를 다하고 있다. 나에게는 가족만큼 소중한 반려견이다.

우리는 어느 순간 피해자에서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가해자이면서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이해하면 삶이 조금은 유연해지지 않을까. 강아지 ‘멍멍’ 소리를 빗방울 연주 소리쯤으로 여기면서 말이다.

그녀는 내 앞에서 구불거리는 머리를

- 김 기 영 -

한 번쯤 훑어본다.

정수리쯤 묶였던 머리카락들이 획 올라갔다 미끄러진다. 내 코앞에 어깻죽지를 보이며 눈썹을 만져보고 형클어진 앞머리를 획~ 귀 쪽으로 밀어낸다. 덩치도 있고 키도 크다. 인사를 한 적도 없고, 무관심하다. 난 ‘이 여자를 본 적이 없는데 이런 당당한 여자를 봤나’ 하며 가는 그녀 등을 멀거니 바라봤다.

몇 번 초등학생도 만났는데 2학년쯤 됐을까? 그 애 어머니가 휠체어를 밀어준다. 눈매는 김연아를 닮은 듯 예쁘고 동그란 얼굴에 미소가 풀잎같이 신선하다. 머리는 양갈래로 땀고 웃은 올 분홍색이다. 깨끗한 운동화에 눈이 오래 머문다. 그 애는 나를 보며 어색한지 인사를 할까 말까 하는 듯 한 번 인사를 했을까? 그러나 그 애의 인사성은 다른 곳에서는 발휘되었다. 같은 어린이를 만날 때면 경쾌하게 손까지 흔들며 다정도 병인 것처럼 군다. 예쁘다.

난 ‘겉고 싶겠다. 엄마가 참 애쓰네’ 하며 속으로 말했었다.

그 남자는 냄새가 난다.

어느 때는 격하게 찌려보고 싶게 심하다.

가끔 머그컵을 들고 벤치에 앉아 있거나 나와 마주친다.

그 남자의 향기가 낯설지 않아서 단박에 알아본다. 그 냄새, 그 사람이다.

난 눈감고도 그 남자를 알아낼 것 같다. 인사는 안 한다. 하다, 말다. 한 것 같기도 하다. 봐도 못 본 척, 못 본 척하다가도 기다려준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지 않제. 이 남자는 11층에 산다. 난 ‘언제 여기서 살았지 이 사람?’ 속으로 생각한다.

내가 보면 안다고 했던 사람들이 없어졌다. 인사는 하고 별말은 안 했던 이웃들 나와 같이 오래된 사람들이 떠났다. 어디로 갔을까~ 그곳에서의 그들 이웃과는 어떨까?

사람들이 이사를 왔다. 덩덤히 알던 사이로 있던, 내가 있는 이곳으로 그녀가 언제 이사왔을까? 내 앞에서 거울만 보며 긴 머리를 잡아당기던 그녀는 8층에서 내렸는데. 나와 외면한 사이다.

휠체어를 타게 된 그 애는 언제 여기 온 걸까? 내가 수영 갈 때면 그 애도 학교를 가는가 보다. 4층에서 만난다. 인사를 할까 말까 하는 것 같다.

그 남자는 담배 취향이 골초인듯하다. 11층까지 그와 있을 때면 숨을 안 쉬고 싶다. 우리집 바깥 양반도 골초 대부에 가까운데, 집에 들어오는 순간 강렬한 채취로 균열을 일으킨다.

이렇듯 나는 스치듯 지나듯 무관심했었다.

뭐 저런 의아함으로 일관했으며 이웃이라 생각조차 했었을까 싶었다. ‘그들도 나처럼 그런 걸까?’ 한번 생각해본다. 교양이란 것을, 어른이란 것을.

이사 온 엘리베이터 친구들, 그들 모습만 봐도 서먹하다. 언제쯤 서먹함에서 친숙함으로 길이 날까? 수영하는 사람들은 안다.

‘물방울이 바위도 뚫는데 수영 물이 몸매 라인하나 못 깎겠어’라고.

잇고 살다보니, 어느새 사람도 바뀌고 나도 바뀌어 여기 있습니다.

나부터 시작하는 한 주도 잘 해보겠습니다.

신트리 도서관 [책꽃길 독서동아리]

3차시

시문학 자작시 쓰기

명퇴 교사의 하루

- 유 정 희 -

9시 넘어 탄 지하철
낮설다
출근 시간이 지난 만원 지하철
인구가 줄고 있다는 통계
거짓이 아닐까?
의심해 보는 순간

서울로 향해 가는 사람들
‘잘 다녀와. 오늘도 좋은 하루.’
마음속으로 인사를 건넨다

오늘은 부천 시청 소극장
무료로 상영하는 영화 ‘바그다드 카페’ 예매표
상영 시간을 기다리며
시청 앞 벤치에서
열심히 걸어서 얻은 쿠폰으로
마시는 무료 아메리카노 커피 한 잔

딱 붙는 레깅스를 입은 아가씨의 경쾌한 걸음
‘만지지 마! 아야 해’하면서 아기를 돌보는 젊은 엄마
삶은 밤을 오손도손 까먹는 두 중년 부인
나들이 나온 유치원 병아리들

모두 아름답다

예쁘다

그냥 그대로 풍경이고 그림이다

9월 15일 9시 34분

그저께까지 반팔, 반바지 입었는데

오늘은 위, 아래 긴 옷 떨쳐 입고

푸른 잔디 바라보며

커피 마시는 이 순간

너무 좋다

좋아

진저리 나게 좋다

우리 냥이에 대한 생각

- 김 영 희 -

으뜸 살가운 개냥이를 원했지만
오라면 가고, 가라면 버티는
알다가도 모를 청개구리 우리 냥이

17년 동거동락 여전한 외사랑
도도하고 시크한 결눈질이 일상이지만
옆구리 안 시리게 꼭 붙어 채워줘서 행복

똥꼬가 자주 얼굴을 덮지만
등 배 따시게 체온을 나눠줘서 감사하다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궁금한 전지적 우리 냥이 시점

코코
(반려견)

- 김 경 자 -

마주 보이는 곳에는 늘 내가 있다
이불에 파묻혀 고개만 내밀고 물끄러미 바라본다
책상 앞에 앉아 있는 나를
흰자위가 보이는 자세로 반쯤 감은 눈으로
초점을 맞추려 껌벅이며
줄음 물리치려는 전사(戰士)가 된다

열넷,
시간의 무게가 은빛으로 꼬불꼬불 흔들리고 있다
검은 샤넬 원피스 같았던 외투는 주름투성이다
가늘고 곧게 뻗었던 다리는
옆집 할머니 오자형 다리로 구부러들고
분홍빛 머금던 엉덩이는 까만 무늬 딱지 어른거린다

멍멍,
새벽 한 시가 되면 조용히 부르는 소리 있다
나는 일어나 맑은 생수를 접시에 따르고
작은 알갱이를 조심조심 그릇에 담는다
뜨거운 라면 불어서 후루룩 삼키듯
한입에 모두 몰아넣는다
근심이 살며시 스며든다
치매를 앓았던 내 어머니의 식성이 떠오른다

어쨌든

잘 먹고

지금 같은 모습이라도 오래오래 있어 주기만을

서로의 기억 속에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던

우리끼리 주고받은 은밀함이 쌓여 있다

봄날에는

양귀비 꽃밭을 날아오르며 나비처럼 가볍고 사뿐했었다

귀 열어 뒤로 접고 하늘로 치켜든 꼬리

붉게 물든 홍으로 꽃잎이 된 검은 털 뭉치 아가

이제 시름을 이겨내려 잠 속으로 파고든다

등을 어루만지면 노곤한 몸짓을 한다

활처럼 휘며 더 꺾꺾 누르란다

그르렁거리는 울림으로 시원함을 내비친다

손끝이 따뜻해진다

조곤조곤 누르며 전한다

오래도록 이야기가 이어질 수 있기를 꿈꾼다

도서관

- 김 기 영 -

쌀쌀한 늦가을 아침
포근한 이불 속
벗어나기 어려운 유혹

갈까, 말까
몸은 가지 말자고 눈을 감고
머리는 어서 가라고 손짓 하네

안가면 몸은 편하겠지만
마음은 엄청 불편하겠지

무거운 몸을 이끌고
가방을 매고 나선다

눈 앞에 보이는 도서관 입구
그래~ 애썼어 오느라

각자의 꿈을 향해
열정으로 빛나는 그곳 도서관

그 꿈과 열정은
무거운 가방도 가볍게 해주는 그 이상의 무엇

내가 도서관을 찾는 이유

신트리 도서관 [책꽃길 독서동아리]

4차시 포토에세이 쓰기



반장과 부반장의 결혼식

- 유 정 희 -

어머니 제가 수정이와 결혼을 합니다. 꼭 오셔야 합니다.

10년 전 부천정보산업고등학교에서 우리 반의 부반장 솔이에게 문자가 왔다. 학교의 모든 일에 적극적이며 모범적이었던 솔이는 솔직담백한 성품으로 학급을 유쾌하면서도 단합이 잘 되게 이끌던 소금 같은 학생이었다. 우리 반의 학생들은 그 당시 40대 초반이었던 나를 어머니라고 불렀다. 그 당시에는 고2 남학생들이 그렇게 부르면 참 징그러운 소리로 들렸는데 지금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어머니라는 그 소리가 아련하다.

그해 학급을 잘 이끌던 솔이는 다음 해 내가 맡은 반의 반장 수정이를 알게 되었고 마음에 들어 했다.

어머니 제가 수정이가 마음에 듭니다. 저의 장점을 말해주셔서 수정이를 사귀도록 도와주세요.

술이는 우리 반, 반장을 사귀고 싶어 안달이 났고 나는 소원을 들어주었다.

정말 팬찮은 우리 반 부반장이었어, 한 번 사귀어 봐, 수정아.

그리고 나는 다른 학교로 전근을 가게 되었고, 세월이 흘러 두 학생을 잊고 지냈다. 그런데 해마다 스승의 날이면 술이는 항상 문자를 보내왔다. 수정이와 잘 사귀고 있다. 수정이와 싸워서 헤어졌다. 다시 만났다 하면서 그들의 근황을 알려주었다. 작년 스승의 날 밤에는 깜짝 사진을 보내주어 잊지 못할 스승의 날을 기념해 주었다.

어머니 아들이 이렇게 잘 커서 몸짱 대회 나갑니다.

몸짱 대회에 나가기 위해 복근을 만들었다며 자신의 복근 사진을 보내주어 나를 한참 웃게 만들었다. 어이쿠... 스승의 날 복근 사진 받는 선생은 나밖에 없을 거야. 아무튼 술이는 10여 년이 지나도록 내가 그들의 담임이었음을 기억하게 해주었고 둘의 사랑을 알콩달콩 키워나가더니 이번 달에 결혼을 했다.

결혼식 당일 눈물이 났다. 두 제자의 예쁘고 사랑스러운 모습이 그리도 보기가 좋았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여러 가지의 감정이 올라왔다. 그리고 10년 동안 헤어짐과 만남을 반복하면서도 결혼에 이른 제자들의 사랑이 숭고하게 여겨졌다. 이들은 결혼 후 이어질 많은 역경을 이겨내고 오래오래 잘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담임이 천국에 가도록 계단 한 칸을 놓아주었다. 세 쌍을 이어주면 천국에 간다는데 제자들이 두 번째이다.

교직 생활에 있어 나를 ‘어머니’라 불러 주던 제자들, 어느덧 성인이 되어 결혼하게 된 두 제자들, 사진 속 행복함이 나에게도 전해진다. 예쁘게 행복하게 지금처럼 잘 살 아라,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아!

식구

- 김 경 자 -

눈길을 걷습니다.

하얀 세상 둘만이 존재하는 시간. 늘 함께 있다 해도 서로를 맞아들이는 마중이 필요합니다. 맹충맹충한 시선이 아니라 깊은 마음속까지 들어올 수 있도록 환영 인사가 필요합니다. 기꺼이 맞이하는 눈 맞춤과 포옹이 있어야 합니다. 교감을 위한 빛을 서로 발산해야 합니다. 몸짓이든 눈빛이든 서로의 마음을 알아챌 수 있도록 보여주어야 합니다.

해돋이 공원이 하얀 카펫을 펴서 단장하고 사람들을 기다립니다. 아직 잠에서 깨어나지 않은 이들이 더 많은 휴일의 이른 아침, 서로를 강아지라 생각하는 그와 코코(반려견)가 산책합니다. 뽀드득거리며 속삭이는 눈의 대화를 들으면서 걷고 또 걷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를 향해 장난기가 발동합니다. 으르렁거리며 다가가고 멀어지기를 반복합니다. 앞으로 달리다가 뒤돌아보며 확인하고 안심한 듯 잘 따라오라고 짹짹 누르며 폭신한 흰 카펫에 음각으로 발자국을 남깁니다. 그림자 대신 뒤따라오는 발자국마다 웃음의 메아리가 담깁니다. 누가 더 비틀거렸는지 누가 더 많이 넘어지고 크게 웃었는지 그대로 흰 별판에 찍혀 보관됩니다. 오롯한 둘의 감성이 눈 덕분에



더욱 두터워졌습니다.

믿음의 터널을 통과하면 세상이 밝고 든든해 보입니다. 설원처럼 모든 것이 맑고 투명해집니다. 믿음으로 열린 가슴에는 작고 미세한 흔들림도 커다란 감동과 전율로 와닿습니다. 존재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온기가 전해지며 위안을 얻습니다.

봄이면 푸른 잔디로 덮인 이 공원에서 코코는 자전거를 따라 달리기를 하며 질주 본능을 마음껏 풀어 놓습니다. 우리는 곁에서 보는 것으로도 충분히 상쾌하고 벅차오르며 심장이 뛰니다. 코코의 움직임은 식구들의 이목을 집중시킵니다. 모두의 관심 대상입니다. 코코는 정적을 깨고 침묵을 깨고 아침을 깨웁니다. 가끔은 밥그릇도 깎니다. 발로 끌어내려 자기 기분만큼 힘주어 차곤 합니다. 밥 내놓으라고 호통치는 것이지요. 제 몫을 잘 챙기는 것 같아 그저 기특합니다. 가장 중요한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것이니까요.



집에서도 존재감을 드러내는 참견쟁이 코코는 분주합니다. 자기가 아니면 안 된다는 듯이 온 집안을 헤집으며 참견합니다. 베란다 구석구석까지 들여다보며 감시합니다. 부엌에서 나는 냄새를 맛보고 싶어 합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 두 발로 서서 키를 높이고 위쪽의 냄비를 살피곤 하지요. 길어진 목만큼 하루가 무척 바쁩니다. 보람된 나날이지요.

눈이 오는 비가 오는 바깥세상을 궁금해하는 것은 코코처럼 우리 모두도 똑같습니다. 코코는 눈의 냄새까지 맡아봅니다. 혀를 내밀어 하얀 설탕 같은 맛인지 확인해 보기도 합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고 싶어 눈 위로 넘어지듯 누워 몸을 맡아 굴러보기도 합니다. 함께 하는 놀이는 우리에게도 공감을 주면서 새로운 감각을 깨워줍니다. 서로를 환하게 비춰줍니다. 하얀 설경으로 채워진 공원. 모락모락 따뜻할 것 같은 눈이 폭

신하게 와 닿습니다.

‘시간은 그대로 멈춰라’ 외쳐봅니다.

